

## 간벌재 산업화 대책

산림청에서는 이제까지 간벌재 이용이 일부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요처가 없는 관계로 산주들이 간벌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간벌재를 가공·이용하는 업체들과 간벌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.

-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조림한 장기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'88년부터 간벌사업 64천ha를 추진하였으며, 2004년까지 국유림 70천ha, 민유림 370천ha, 총 440천ha의 장기계획을 수립 년차별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.
- 금년도에도 간벌을 하는 산주에게는 사업비의 80%(ha당 금액 649,397원 국고 : 40%, 지방부 : 40% 자부담 : 20%)를 정부가 보조키로 하고 23,670ha에 12,29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간벌을 원하는 산주는 시·군 산림과에 신청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산림청에서는 간벌 장기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벌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'96. 5. 8일 「간벌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」를 관련업계와 연구기관등이

참석하여 효율적인 간벌재 생산·가공·이용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.

###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

- 국내에서 생산되는 간벌재의 가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산재를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 각종 세제혜태과, 자금지원등을 통해 수입재와 경쟁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,
- 국내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임업의 기계화촉진 및 전문노동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,
- 산업용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간벌이 활성화되어 우리 임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.
-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'96년에 간벌재를 약 160천m<sup>3</sup>정도 생산하여 통나무 상태의 가공(통나무집, 휴양림, 놀이시설, 울타리, 농업용등), 집성재(보드류, 섬유판등) 펄프재, 톱밥(축사용 깔개, 유기질비료등)등으로 가공·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자금 95억원, 원

자재구입자금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앞으로 간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정부예산의 확대지원과 산주의 자발적 참여, 새로운 간벌기술의 보급 및 간벌소경제의 이용도 개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해

나가므로서 현 목재자금을 15%에서 2040년에는 60%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임분의 재적 증대 도모로 간벌재의 산업화를 통해 목재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## 국유림휴양림 입장료 징수부활

- 취사장 사용료는 폐지 -

산림청은 '95. 8. 1 폐지하였던 국유림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'96. 5. 15부터 부활하는 한편 취사장 사용료는 폐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.

- 산림청은 그간 입장료를 폐지하고 취사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징수해 온 결과
  - 이용객의 입장료 폐지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무질서한 이용과 휴양시설의 파손, 보안유지상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
  - '96. 5. 15부터 입장료는 종전과 같이 성인 1인당 700원으로 징수토록 하고 1인당 500원씩 징수하던 취사장 사용료는 폐지하기로 하였다.
- 특히 휴양림 입장료 폐지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국유림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었으나,
  - 이용객들의 불시출입 등으로 통

제가 불가능하며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고, 부랑자들의 휴양시설 무단사용과 도난, 훼손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,

- 인근 공·사유림 휴양림에서 1,000~2,000원씩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형평성 결여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
- 각종 휴양쓰레기 무단투기로 환경정화에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충당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며
- 이러한 입장료 징수재개는 수익면 뿐 아니라 출입자의 관리·통제·안전 등 다양한 기능의 원활을 도모하는 한편 자연 속의 휴식 혜택을 누리는 반대 급부로서의 의미를 감안, 종전대로 징수키로 하였다.